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41 (바다의 별이신 성모)	512 (주여 우리는 지금)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205 (사랑의 성심)

### 제 1독서 | 창세기 3,9-15

#### 화답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좌)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우)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제 2독서 | 코린토 2서 4,13-5,1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 마르코 3,20-35

#### 영성체 후 묵상 구절 |

<1요한 4,1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 Today's Gospel, <Mark 3:20-35>

Jesus went home with his disciples, and such a crowd collected that they could not even have a meal. When his relatives heard of this, they set out to take charge of him, convinced he was out of his mind.

The scribe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were saying, 'Beelzebul is in him' and, 'It is through the prince of devils that he casts devils out.' So he called them to him and spoke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last. And if a household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hold can never stand. Now if Satan has rebelled against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either - it is the end of him. But no one can make his way into a strong man's house and burgle his property unless he has tied up the strong man first. Only then can he burgle his

house.

'I tell you solemnly, all men's sins will be forgiven, and all their blasphemies; but let anyone blaspheme against the Holy Spirit and he will never have forgiveness: he is guilty of an eternal sin.' This was because they were saying, 'An unclean spirit is in him.'

His mother and brothers now arrived and, standing outside, sent in a message asking for him. A crowd was sitting round him at the time the message was passed to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nd sisters are outside asking for you.' He replied,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And looking round at those sitting in a circle about him,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Anyone who does the will of God, that perso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

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Therefore I tell you, every sin and blasphemy will be forgiven men, but the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There are no limits to the mercy of God, but anyone who deliberately refuses to accept his mercy by repenting, rejects the forgiveness of his sins and the salvation offered by the Holy Spirit. Such hardness of heart can lead to final impenitence and eternal loss."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864항 -

##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 1,1) - 안소근 수녀님

어느 날 기차 안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어렸을 때에는 성당에 다녔는데 과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 씀이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제대로 알려 드리기만 했어도 신앙을 버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와 자연 과학, 창세기와 역사의 문제, 그리고 진리의 문제.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창세기의 진술들을 한 마디 한 마디 사실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 중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되물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2장에서는 먼저 인간을 만드셨고 그 후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성경 본문 안에서 이미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 1—11장의 태고사뿐만 아니라 12—50장의 성조사도, 역사적 사실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 고고학이 처음 생겼을 때에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 줄 증거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빚나갔습니다. 탈출기와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연 과학과의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갈릴레이 사건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태양을 멈추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여호 10,12-14 참조). 움직이고 있어야 멈출 수가 있으니까, 태양이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던 갈릴레이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학이나 자연 과학의 지식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역사학이나 자연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 태도가 모두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굴은 왜 주황색이냐고 식구들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대답도 있었고, 굴은 먹

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힐 수 있도록 예쁜 색을 띠게 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굴의 색깔에 대한 설명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설명하는 방법 역시 그러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6일간에 걸쳐 만드셨다고 말할 때에는, 이 세상이 존재하던 첫 6일 동안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생겨난 과정을 자연 과학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이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하여 존재한다는 것, 다음으로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본래 선하고 귀중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인간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돌볼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 다음으로 11장까지 이어지는 태고사 역시 이 세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느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세상 안에 악이 공존하고 있고, 그러나 하느님의 축복이 악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창세 12—50장의 성조사는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갖게 된 신앙을 전해 줍니다. 그들은 점차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삶 안에서 하느님과 만남을 체험했으며, 이를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기록으로 전수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말로 전해진 것이었으며, 완성된 형태로 고정되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때로 후손들은 조상들의 역사 안에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이들의 역사에는 유배를 겪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후손의 수는 60만 명이 아니었고, 예리코를 함락시킨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 성경이 거짓되었다고 여기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이 60만 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호수아가 예리코를 함락시켰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저자들이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오류나 부정확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이 경우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저자의 이런 약점은 당시의 사회생활에서 늘 사용하던, 그리고 실제로 통상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버린 고대인의 일반적 표현 양식과 그들 고유의 설화 구사법에 기인하는 것이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성령의 영감』, 38항).

## 공지 사항

### 1. 6월 미사 후 '티 타임'

- 6월 9일: 루카반 + 마르코반
- 6월 16일: 마태오반

### 2. '여정 - 시즌 1'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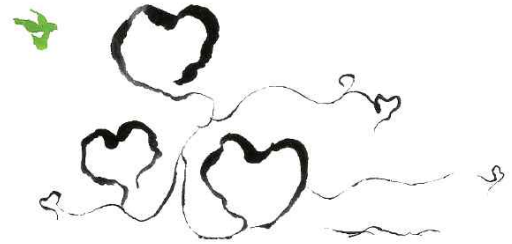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3. 첫영성체 교리반 안내

- 일시: 7월 7일(주일)~ 28일(주일) (총 4회)
- 교리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7살 이상 학생
- 첫영성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PDF 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주보'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등지 아래에 까치가 버린 나뭇가지가 수북합니다.



너도 꼭 필요한 가지만 골라 단단한 등지를 지어라.  
그러면 타인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등지를 있게 될 것이다.

### | 미사 참례자 수 |

6월 2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44명
6월 9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48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6월 9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6월 16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6월 9일)	루카반
다음주 (6월 16일)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 (6월 1일 ~ 6월 7일)

봉 헌 금	\$860			
교 무 금	\$188			
권묘순	김요한	김정수	김천주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허준	

###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